천보산 관통도로 開設 전철과 연계 필요

한내울포럼, '포천의 교통문제 원인과 대책' 토론

한내울포럼(공동대표 송순석 윤순옥 이희용)은 4월6일 오후7시 대진대학교 대학원 2층에서 '포천의 교통문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4월 정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희용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의정부에서 포천으로 들어오는 43번 국도가 교통의 지옥이라 불리며 이곳을 통행하는 시민들의 짜증을 유발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의 무관심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43번 국도는 출근 시간대 의정부에서 포천 방향 축석검문소, 부인터 하송우리 방향의 상습적이고 대책 없는 정체와 현재 공사 중인 귀락 터널 구간의 병목현상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근 의정부시의 도로확장과 맞물려 포천의 교통문제는 너무도 심각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퇴근시간에도 포천, 송우, 이동교리 등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방법을 속히 만들어 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47번 국도 내촌과 가산 구간에 대한 고질적인 정체와 송우리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 관한 문제점도 심각하게 제기됐다.

이날 토론에서 공동으로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도 43호 상습정체구간의 개선을 위하여 출퇴근 시간대에 신호체제의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이면도로를 보완하여 주도로의 차량을 일부 외곽으로 유도하며, 중장기적으로 지하도나 고가를 건립해야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비를 유치하여 더 많은 도로의 증·개설을 위하여 다른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시행해야 한다.

▶송우리 홈플러스 주변도로가 시민의 자동차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그 주변 도로의 진입이나 신호체제를 재점검하여 개선방향을 마련해야한다. 내촌시가지를 우회하는 도로의 개설, 가산삼거리 도로의 병목개선과 사고 안전장치의 확보, 축석부근 의정부 연결도로의 조속한 개통, 그 후 우려되는 부작용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양주시와 포천시 송우리를 연결할 수 있는 천보산 관통도로를 개설하여 전철노선과 연결되게 하여 차량의 통행을 분산시키는 것도 현실성이 있는 방안이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자유기고

전화사기 주의

이 상 일
조사위원

얼마 전까지 국세청 및 국민연금 등을 사칭한 전화사기가 극성을 부리더니 최근에는 백화점 물품구매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28일 발신자표시가 나타나지 않는 전화가 걸려와 받아보니 "서울 L백화점에서 구입한 물품대금 290만원을 통장에서 인출할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을 듣고 싶으면 안내에 따라 전화기 버튼을 누르세요 "라는 말이 나오더군요.

L백화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어 직감적으로 전화사기라는 생각이 들어 확인하고자 전화버튼을 누르니 상담원이 나오더군요.

어눌한 말투의 중국교포인 듯한 여성 목소리로 "국민은행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 하더군요.

"저는 L백화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적이 없는데, 무슨 물품대금이냐"고 했더니 확인해보겠다며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를 요구하더군요.

최근 전화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는데, 이 전화도 그런 게 아니냐고 했더니 과감히 전화를 끊더군요.

이런 전화를 3회에 걸쳐 받았습니다.

국민은행과 L카드사 고객상담실에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은 전화사기가 최근 들어 극성을 부려 그 대응책을 찾고 있는 중이라 합니다.

중국 등지에서 걸려오는 사기전화로 추정되며, 신용카드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세심한 주의를 하여 피해를 당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유기고

영업속에 묻어나는 웃음꽃

김 순 희
주부 명예기자단
내촌면지부장

꽃 중에서도 가장 예쁘고 소리나는 것은 웃음꽃이라는 생각을 한다. 영업을 하고 있는 나. 우체국에서 7년째하고 있지만 항시 새로운 고객을 만나고 기존 고객들을 만나면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언제나 행복하게 한다.

광릉내 어르신 고객님들을 만나러 갔다. 오랜만에 뵙지만 기다리신듯이 반갑게 맞이 해주신다. 영업을 하고 있는 저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부담을 느끼실텐데도 그분들의 모습에서 반가움의 기색을 역력히 볼 수 있었다.

"자 오늘은 어떤 것을 가지고 왔수? 물건 파는 영업도 아닌데. 네 오늘도 환하게 웃어 볼까요. 자 얼굴 운동해야지요. 위로 아래로. 자! 소리도 좀 질러 봐야지요. 자 그럼 박수 주먹 가위 바위 보....."하시면서 벌써 하하하하하 호호호호 하시는 얼굴이 웃음의 빛이 난다.

한시간을 같이 웃고 보면 그분들의 얼굴에는 환하게 빛이 나고 어두웠던 얼굴 표정도 밝게 빛을 발하고 계셨다. 가장 예쁜 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어르신 자신입니다. 자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존재하기에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사랑해야하는 것이지요.

고부간의 갈등도 있었던지 그것도 물어 보신다. 어떻게 해야 현명한지를. 어르신들의 물음에 대답을 해주고 나니 다음에도 또 해 달라 하신다.

다음에 노인정에서 많이 모아 놓을 테니 꼭 와 달라 하시는 어르신의 말씀을 듣고 그래 "이것도 영업을 하는 묘미구나"하는 생각을 한다.

그 시간 또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자신을 돌아 봤다. 같이 웃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맨처음은 쑥스럽지만 모두가 같이 한다는 것이 많은 생각을 갖게 했다.

열심히 영업 또한 해야 되는 나이지만 가끔은 그런 행복한 일들 때문에 힘이 되어지는 것 또한 당연하다는 생각을 한다.

영업도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웃음을 찾을 수 있고 건강하게만 되어진다면 그것 또한 영업이라는 생각도 하게된다.

언제나 느껴지는 것은 누군가에게 봉사를 한다면 그것또한 다시 되돌아 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마음속에서 항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간다면 모든 이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승호의 야구 이야기 ⑤

私利私慾 삼진아웃!

장 승 호
포천야구협회 회장

봄의 따사로운 햇볕과 곳곳에 만발한 벚꽃들. 그리고, 개나리와 아지랑이의 하모니가 가슴 가득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1월11일부터 2박3일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있었던 한국야구위원회 주최의 '2007 유소년 지도자 아카데미'에 참석했습니다.

전국의 25개 리틀야구단 감독과 108개의 초등학교 감독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하고 야구 경기에 유용한 기술을 프로야구 감독들과 코치들에게 한 수 배우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진지한 이론 강의와 실전을 방불케 하는 실습은 영하의 차가운 날씨 속에서 더욱더 뜨거웠던 소중한 교육시간이었습니다.

특히 LG투윈스 야구장에서의 지도자들의 모습은 매우 인상깊게 남아 있습니다. 전 LG투윈스 이광환 감독, 전 삼성라이온즈의 우용득 타격코치, 이순철 코치, 이충순 투수코치, 권두조 코치, 조범현 코치등 한국야구에 있어서는 최고의 선수생활, 또는 지도자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짧은 시간동안 조금이라도 야구에 대한 기술을 가르쳐 주고자 안달이 난 사람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직접 슬라이딩을 보여주고 뛰어다니며 베이스 런닝을 하고 영하의 날씨 속에서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에서 진정 프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프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말까지 덧붙여 주었습니다.

우리주위에도 보면 항상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겠다. 무엇을 이렇게 해주겠다. 등등 소위 지역의 지도자라는 사람의 선심성 말장난은 도를 넘어 드디어는 바닥을 드러낸 것을 요즘 느낍니다.

시민들의 입에서 '말로만'이라는 지도자가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포천시민들이 진정한 프로를 찾아내고 시민과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일 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의 발굴이 필요한때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고 시민을 우롱하거나 사리사욕을 꾀하는 지도자들은 이제 삼진아웃 시켜야 합니다.

심판은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삼진아웃'도 자신 있게 외쳐봅시다.

문의 : 011-242-0869

웰빙 부사의(不思意) 14 예술(藝術)

'미(美)와 사상(思想)을 추구하는 것'

이 규 임
한국영상제작학회 회장

예술(藝術)이란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예술'이란 말은 그만큼 대중적(大衆的)인 말이다. 그러나 막상 예술이 무어냐고 물으면 얼른 대답을 못할 것이다.

예술이란 말은 그처럼 쉽고도 어려운 말이기 때문이다. 예술이란 말을 사용하는 분야가 그만큼 넓고 다양(多樣)하기 때문이다. 음악(音樂), 미술(美術), 무용(舞踊), 건축(建築), 문학(文學), 연극(演劇) 그리고 영화(映畵) 이처럼 많은 분야에서 예술이란 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예술이란 미(美)와 사상(思想)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미'란 표현양식(表現樣式)을 말하는 것이다. 예술이란 하나의 '표현양식'이란 말이다. 양식이란 '틀'이요, '그릇'이다. 그것은 하나의 '틀과 그릇'일 뿐이다. 그렇다면 그 틀과 그릇을 이용해 '무엇'을 표현하는가?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다. '뜻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의사(意思)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 '뜻과 느낌과 의사'를 음악과 미술과 무용 같은 '틀'을 빌어 나타내는 것이다. 그 '틀'에 다 사상(思想)을 담아내는 것이다. 그 미란 '그릇'에 담아 사상을 표현(表現)하는 것이다.

그같은 틀이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고 이끄는데 제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 감상(鑑賞)하는 사이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이다. 스스로 하기 때문에 자발적(自發的)인 것이고 스스로 하기 때문에 가식(假飾)이 없는 것이며 스스로 하기 때문에 몰입(沒入)하게 되는 것이다. 몰입하기 때문에 감흥(感興)이 일고 감동(感動)이 밀려오는 것이며 몰입하기 때문에 파급효과(波及效果)가 더욱 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술의 힘이다.

어떠한 예술이던지 형식(形式)과 내용(內容)은 같이 가는 것이다. 형식 따로 내용 따로 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형식과 내용'을 분리해 설명할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란 사상(思想)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가 아니다. 여러 가지이다. 다양(多樣)하다. 예술이라는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다양하다. 때문에 '내용'은 제쳐놓고 형식미(形式美)만을 따지는 것이다.

흔히 '예술의 기본은 미(美)에 있고 미의 기본은 아름다움에 있다'고 말한다. 미란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다. 아름다움이란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넘쳐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는가? 이 같은 미(美)는 어디서 오는가? 미는 균형(均衡)과 조화(調和)에서 오는 것이다.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미'가 나타나는 것이고 예술(藝術)이 돋보이는 것이다.

여기서 균형이란 상대(相對)를 아우르는 말이고 조화란 전체(全體)를 아우르는 말이다. 그리고 균형은 정적(靜的)인 것이고 조화는 동적(動的)인 것이다. 조화란 역동적(力動的)인 움직임 속에서 '하나'를 지향(指向)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를 지향해 움직여갈 때 돋보이는 것이다. 우선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다음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균형은 조화의 전제조건(前提條件)이기 때문이다.

음악용어에 모노폴리(monopoly)와 포노포니(phonophony)란 말이 있다. 모노폴리란 각기 고유한 '악기의 소리'를 말하는 것이고 포노포니란 그 소리가 한데 어울리는 '심포니'를 말하는 것이다. 조화란 이런 것이다. 고유한 악기가 제 소리를 내되 튀어나지 않아야 한다. 한데 어울려야 한다. 한데 어울려 화음(和音)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조화(調和)이다. 물론 내용(內容)이 좋아야 한다. 내용이 우선이다. 그러나 형식(形式)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형식'을 말하고 '예술'을 말하는 것이다. 예술이라는 '형식'을 빌려 '내용'을 전할 때 감흥(感興)이 빠르고 의통(意通)이 잘 되기 때문이다.

Essay

화사한 봄이 그립다

윤 순 옥
포천의제21협의회 고문

사계절 중 봄철만큼 변덕스러운 날씨가 있을까? 황사먼지로 온 세상을 덮어버리고 거기다 때아닌 눈보라에 우박까지 쏟아지니 지난 겨울 못내 기다려진 봄의 환상은 기대 저 먼 곳으로 사라져 버린 것 같다.

계절의 구분도 없이 뒤엉켜버린 듯한 이상 기후에 가뜩이나 두려운 데 시간마다 알리는 뉴스는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다.

컴퓨터를 통한 우리 삶의 일부는 얻은 것도 많지만 그 댓가를 치루 듯 최연소 초등학생까지 악으로 이용하는 면이 있으니 오늘을 사는 선량한 사람들의 머리끝이 시릴만하다.

위험수위가 한계선을 넘는다 해도 한편에선 안정된 면모도 있으니 오늘도 역사는 이루어진다.

창너머 보이는 목련나무는 잎도 나오기전에 꽃잎부터 보여준다. 봄이 왔음을 알리고 싶은 고마운 자연의 순리에 절로 감사함을 느낀다.

마침 오늘 신문에는 안산시의 시화호가 썩은 호수로 악명이 높았는데 이제 옛말이 되어 다양한 종류의 야생동물과 철새들이 떼지어 찾아오는 생명이 넘치는 호수로 변모했다니 이 얼마나 즐거운 소식인가. 살고 싶은 도시 순위 1위로 부상했다니 부럽기도 하다.

생태계 복원이 그렇게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관과 민이 마음을 합쳐 해낼 수 있는 승리의 모습이라고 안산 시민들은 말한다.

함께 가는 길에 동참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실천 하는 것이 과제인 것을.. 순조롭게 잘 진행한 결과의 보람이다.

소흘읍을 거쳐 한내천 영평천을 돌아가는 물길과 개천주변에 많은 나무도 심어 녹색의 도시숲을 형성하면 잃어버린 자연의 모습은 저절로 찾게 될 것이다.

꽃과 나비가 어우러져 많은 사람을 불러모으니 따로이 홍보대사가 필요할까?

그야말로 자연과 함께 숨 쉴 수 있는 곳이라면 그리고 교통난이 해소된다면 도심에서 가까운 포천시는 많은 사람이 찾아 줄 것이다.

이동계곡 뿐 아니라 계곡을 타고 내리는 맑은 물은 생명의 활력소가 되어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요소를 제공할 것을.

구태여 특정인들에게 홍보를 부탁하지 않아도 지역의 모든 이들이 마음을 모아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어 나갔으면 좋겠다.

앞서가는 지도자들의 현명한 판단아래 그렇게 꿈의 도시가 이루어지길 소망해본다. 이 봄에 나무한 그루 심는 마음을 실천하면서.

자유기고

도심속의 만찬

김 은 숙
주부 명예기자

이십여년만에 어렵게 살만한 집을 마련한 언니네집 집들이에 우리 형제들의 만남을 축복이나 하듯이 서울을 향하는 차창밖의 도로변에는 노란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는 개나리가 화들짝 미소짓고 있다.

땅거미는 저녁 무렵 시끌벅적 우리 육남매는 음식이 차려진 상을 사이에 두고 쭈욱 둘러앉았고 시끌시끌 소란스럽게 정담이 오고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무렵 언니의 넋두리가 시작되었다.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힘들게 살았던 시절. "예! 난 라면이 먹고 싶은데 라면 살 돈이 없어 저금통을 털어보니 십원짜리 동전이 몇 개 나오더라." 그것으로 라면을 사 먹은 적도 있다며..... 참으로 살기가 힘들었지만 그때는 그 누구한테도 이야기할만한 사람조차도 없었다면서 하나뿐인 막내둥이 며느리인 올케에게 "넌 지금은 힘들겠지만 너의 주위에는 언니들이 있으니 덜 힘들거야!" "그러니 열심히 살아다오."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그 뒤를 이어 나도 질세라 "난 지금까지 집에서 살림만 한 적이 없어. 백일된 아들을 유모차에 재워가며 가게일을 도왔고, 또 뒤늦게 11년만에 딸을 낳았지만 그 아이마저 백일 되던 날부터 데리고 나와 일을 해야만 했어."라고 나도 무척이나 고생스러웠다며 이야기를 꺼내자 동생들도 앞을 다투어 서로의 힘들었던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고되고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다는 이야기들은 끝이 없었고 가만히 듣고 계시던 노장엄마의 오래된 캐캐묵은 항아리속의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꺼내기 시작하셨다.

육 칠 십 년 대 때 정말정말 어렵던시절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육남매를 길러내던 그 시절 이야기들은 이제 조금씩 철들어가는 딸들의 가슴속을 눈물로 후벼파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아프고 힘들던 과거의 삶은 찰랑거리는 술잔속에 모두 가라 앉히고 우리 식구들은 '내일'이라는 '희망'을 안고 아름답고 즐거운 이야기로 아주 커다란 웃음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도심속의 밤은 깊어만 갔고 끈끈한 피로 맺어진 우리 육남매의 애틋한 사랑이야기는 창밖의 저 불빛 현란한 밤하늘에 잔잔히 물결치고 있었다.

시

개토(開土)

용 경 자
주부 명예기자

동장군과 춘선녀의 한판승부가 끝나더니
흙이 깊은 잠에서 깨어났데요.

백설탕 넣고 캐캐로 살살 뿌려 새하얗게 쪄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난 백설기 같아요.

군대시절 완전무장하고 3박4일 행군할 때
시멘트바닥에 얼얼 달아오른 발바닥을
어루만져주시던 엄마의 포근한 손길 같아요.

먼길을 빨리 다니기 위해 만든 시멘트길속에서
흙은 어떻게 깨어날까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깨어진 시멘트사이로 간신히 숨을 쉬고 풀 한 포기
키워냈네요.

작년에 모든 엑기스를 인간에게 선물하고 깊은 잠에
빠지더니, 이른 봄 다시 깨어 소똥을 보약 삼아
재충전하고 있네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물고물 엄마뱃속에서 태동하는
아가의 모습이예요.
배부르게 모유 먹고 새근새근 잠이
든 아가의 숨소리가 들려요.

고개 들어보면
흙에서부터 올라오는 물줄기가 산천초목을 깨워
사춘기소녀의 볼처럼 파릇파릇 피워내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아닐까요?

아하! 농부님네들,
잠에서 깨어난 흙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지개 한번 크게 켜시고 신의선물 받으러 나가셔야
겠네요.

자유기고

장애우시설 봉사활동 다녀와서...

장 선 옥
주부 명예기자

지난달 딸이 다니고 있는 학원이 학원생들과 함께 철원 문혜리에 위치한 은혜장애자 재활원에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년 20시간씩 의무적으로 실시 해야하는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좋든 싫든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장애우시설이 있는 곳을 봉사활동 장소로 선택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학원에서 다같이 장애우시설에 봉사활동을 실시하기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괜찮은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함께 동참해 보기로 했다.

물론 이런 시설에 처음 방문하는 경우라서 출발하기 전부터 어떻게 장애우들과 함께 어울리면 좋을지 고민하는 학생들도 많았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이 얼마나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행복한지를 학생들이 느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출발하였다.

도착하여서 건물이 큰 시설의 규모를 보며 놀라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모든 창문에 철창으로 막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놀라는 학생들이 더 많았다. 우리는 우선 강당에 모여 시설 원장님으로부터 시설규모와 수용되어 있는 장애우에 대한 설명과 지켜야할 주의 사항을 전달 받았다. 이곳 시설은 1992년에 서울시가 보조하여 만들어진 국립시설로 모두 300여명의 중증 장애우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어날 때부터 또는 성장과정에서 장애를 입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장애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특히 사람들의 정이 그리워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는 말씀과 혹시 과격한 행동을 하는 장애우들도 있지만 따뜻한 사랑으로 손을 잡아주면 모두 행복해하며 즐거워한다는 원장님의 주의 말씀을 듣고 곧 장애우들이 있는 방으로 올라갔다. 이곳을 처음으로 방문한 학원생들은 예상대로 중증 장애우들을 만나자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고 몸을 피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을 보는 순간 자신과 다른 모습에서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고 피하려고 하였지만 장애우들이 즐거워하면서 먼저 손을 내밀자 그때서야 하나 둘씩 장애우들의 손을 잡아주기 시작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르자 몇몇 학생들을 빼고는 모두들 장애우들과 즐겁게 놀아주며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뼉을 치며 노래도 부르고 복도를 거닐며 적극적인 장애우들과 함께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비록 정상적인 걸음과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는 장애우들이지만 바라보는 눈빛으로 마주잡은 손에 따스함을 통해 서로 이 마음을 읽고 있는 듯 했다. 짧은 시간의 장애우와 함께 하는 시간이지만 학생들은 나름대로 많은 생각들은 가슴에 담아 갈 것이고 자신과 다른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자신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가슴에 담고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사회로부터 정상적인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을 포근하게 보듬어 주고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삶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였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다음에 다시 꼭 와줄 것을 몇 번이고 약속을 받고 있는 장애우들과 다음에 꼭 오겠다고 약속하는 학생들 사이에는 처음에 피하던 모습과는 달리 따스한 사랑이 피어나고 있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시설을 빠져날 올 때 차량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는 장애우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아련하게 떠오른다.